

## '97 새양축가상 수상한 당진지부 이 제 만 회원

▲ '97 새양축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이제만 회원

본회 당진지부 회원인 이제만씨가 농림부가 올해초 시상한 '97 새양축가상(국무총리상)을 받았다. 34세의 젊은 양돈가인 그는 정정순 여사(34세)의 내조에 힘입어 양돈은 물론 인공수정 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본회 인천지부 이사를 역임하는 등 많은 사회활동을 보이는 한편 매년 소년소녀가장돕기, 무의탁 노인 사랑의 도시락 전달운동, 관내 경로 위안잔치 성금전달 등의 참여로 지역주민의 신뢰와 덕망을 한몸에 받고 있다. 이 양축경력에는 14년이며, 현재 2,710두 규모의 양돈을 하고 있다.

**충** 남 당진군 합덕읍 소소리에서 양돈장을 경영하고 있는 이제만씨는 양돈인의 집안에서 태어나 줄곧 양돈을 해 온 양돈이 몸에 밴 진짜 양돈인이다.

그는 군 제대후 83년부터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하였고, '89년 양돈 규모화를 계획·실천하여 '92년 말에는 모돈 150두, 비육돈 1,450두 규모로 늘렸으며 환경 친화적인 양돈장을 가꾸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아 돈분발효 건조시설을 설치하였다.

또한 대전충남양돈축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 돈육사업에 참여하여 사료의 통일, 종돈의 통일, 공동 판매로 양돈축협 육가공공장에 납품하여 이를 '길포크'라는 고유 브랜드로 수출하여 현재는 수출물량을 전량 공급하기가 어려울 만큼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자동 급이기 시설 및 스크레파에 의한 자동분뇨처리를 통한 인건비 절감과 인공수정센터의 모든 돼지를 분기별로 가축위생시험소에 각종 질병 검사를 의뢰하여 청정돈만을 선별하여 정액을 채취하는 등 사양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개념으로 품종 좋은 급하기도 하고 있다.

### 인공수정센터 운영으로 지역양돈 선진화

이제만씨는 우량정액을 자체 생산 조달하기 위하여 관내농가를 중심으로 '96년부터 '당진인공수정 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관내 양축가들의 관내 양돈생산원가 절감, 고품질 돈육생산, 균일화된 비육돈 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이제만씨가 하고 있는

많은 활동중에서 '97 새양축가상을 받게 된 가장 큰 활동으로 보여진다.

현재 인공수정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액제조실, 정액채취실, 종모돈사, 관리사, 인공수정 기자재 등을 갖추고 있으며, 유전능력이 우수한 종모돈을 직접 들여와 품종개량 및 웅돈사육비 절감을 통한 양돈농가의 실익제고 및 편익도모에 기여하고 있다.

인공수정은 군비의 지원을 받아 복당 10,000~12,000원의 거의 원가에 가까운 저렴한 가격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정회원 34명, 비회원 15명을 둔 당진 인공수정조합법인은 '97년 한해동안 12,000복을 인공수정 시키므로써 지역양돈을 선진화로 이끄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 대략 지역 모든 돼지의 30%가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50% 정도가 당진 인공수정조합법인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어려운 점을 묻는 필자의 질문에 그는 비육돈



▲부인 정정순 여사와 함께 농장을 배경으로 한 다정한 모습

필자가 본 이제만씨의 첫 모습은 아침일찍 동네 노인분들을 야유회 장소에 모시다 드린 후 약속시간을 지키기 위해 허겁지겁 사무실로 들어오는 모습이었다.

이제만씨의 미안하다는 듯 웃는 웃음속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전부인 양 하는 요즘 사람들과는 다른, 어쩌면 사회사업가 같은 여유로움과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다.

평균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평균단가 가격 설정시에 모돈도 포함되어 있어 실제 비육돈 단가가 낮게 책정되어 지는 것 같으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분노처리에 있어 공무원들의 탁상공론으로 농가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며, 기초단체의 모델제시가 있는 다음 농가들의 실시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제만씨는 소규모 양돈작목반을 이끌어 오기도 하고 있는데, 여름철 6~10차례 소독약으로 동네소독을 하는

등 지역을 위해서 조그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시끌벅적한 큰 사업을 하는 유명인사가 아닌, 표시는 잘 안나지만 동네의 잡다한 일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더 없이 좋아보이는, 동네 노인분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많은 젊은이가 이제만씨이다.

〈취재 : 조진현〉 **養豚**